

개 회 사

불법홍포와 가람수호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교구총회에 많이 동참해 주신 직할교구 주지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종단 집행부는 ‘소통과 화합’을 종단 운영의 근간으로 삼아 불자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불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중에서도 직할교구는 항상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통성을 회복하여 우리 종단이 새롭게 출범한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기간 동안 사회와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데 미흡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새롭게 매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직할교구는 지역단위로 주지 협의회를 구성하여 단위사찰의 한계를 극복한 사찰간의 연계된 사업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찰기능을 넘어 종단과 불교의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직할사찰 주지의 인사과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사찰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할주지인사과과의 점검하는 항목 하나하나가 ‘자성과 쇄신 결사’의 구체적 실천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종단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자성과 쇄신 결사는 지난 일 년여 대중공의와 제방의 고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실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결사가 가진 의미 그대로 모든 사찰과 사부대중의 능동적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담당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종단은 이러한 변화와 개선의 의지를 통해 기대한 성과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종단과 종도들이 기대하는 직할교구의 위상을 올곧게 세우고 이러한 상황들을 능동적으로 이해하여, 종단출범 50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불교 부흥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직할교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주 무대로 하기 때문에 담당해야 할 직할교구의 역할도, 사부대중의 기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직할교구의 숭선수범과 선도적인 역할이 종단 전체의 발전에도 지대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는 구태의 안일함에서 벗어나 큰 원력과 지혜로 당면한 현안들을 극복하고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단 운영의 근간인 ‘소통과 화합’은 바로 여러 스님들의 능동적인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보다 나은 직할교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스님들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통하겠습니다. 직할교구 주지스님들의 뜻과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할교구 주지스님 여러분 !

올해 직할교구에서는 수도권 포교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사찰과 함께하는 직할교구 중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직할교구가 종단의 모범교구로서 지역의 문화를 선도하고 시민의 의지처가 되어 ‘소통과 화합’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는데 직할교구가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불기2556년 2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